

학교폭력 예방·근절 협력체계 강화

도교육청, 학교전담경찰관 협력 강화 워크숍

학폭 대응 지역정보연계 협의체 구성 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주엔터테인먼트컨벤션에서 교육(지원)청-학교전담경찰관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46명과 학교전담경찰관 37명 등 총 83명이 참석했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과 처리에 따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기학생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최근 학교폭력 동향 및 교육청-경찰청의 상호 협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다.

이어 주요 정책 소개, 학교전담경찰관 우수사례 공유, 학교폭력 대응 지역정보연계 협의체 구성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토론 등도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전주엔터테인먼트컨벤션에서 교육(지원)청-학교전담경찰관 협력체계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교육청, 중·고교 교감 대상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29일 과학교육원 사이언스홀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감 350여명을 대상으로 중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진단보장시스템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1학년을 기초학력 책임학년제로 지정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습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 진단을 구체화하고, 학습수준에 따라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정규수업 내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는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는 올해 13개교에서 내년 16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학습·심리·건강 등 복합적 요인에 대한 종합지원으로 두드림학교도 운영된다.

아울러, 교과보충프로그램과 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부족한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쉼터 캠프 운영으로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에 대해 단위학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담당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매뉴얼 개발 및 협력강사의 학습지원으로 기초학력 기반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보건행정학과

연세대 편입학 2명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민혁·양승준 학생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계교육과정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총 18명이 합격했다.

김민혁 학생은 "앞으로 꾸준히 보건관련 전문가가 될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것"이라며 "그 기회를 갖게 해준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의료정보관리전문가 및 보건의료경영전문가의 역할을 선도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학년도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와 보건의료경영학과로 새롭게 출발한다.

우병훈 총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전주비전대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또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전 교직원들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었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5층 회의실에서 '2023 NASA 글로벌 캠프'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은 NASA 글로벌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주과학에 대한 시야 넓혀줬다"

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결과 발표회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5층 회의실에서 '2023 NASA 글로벌 캠프' 결과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캠프 참가 학생을 비롯해 인솔교사,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화산중학교 학생은 "NASA Space camp는 우주과학에 대한 시야를 넓혀 줬다. 우주인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은 우주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갖게 해줬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도 배우고,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면서 책임감도 강

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군산신북중학교 학생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그 자체인 우주와 천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넘버일 관심사 블랙홀... 이 모두를 탐구하는 천체물리학자의 꿈을 가진 나에게 이번 NASA 글로벌 캠프는 그 꿈을 확신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 준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학생들은 11월 1~4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미국 명문대학교 과학 탐구 활동, NASA Goddard Space Center 특강, 문화체험, 박물관 탐방 등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5일부터는 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공업도시 헌천빌에서 NASA Space Center 캠프에 참여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캠프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문화 이해·체험·학습·진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6%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NASA 글로벌 캠프는 첨단 과학기술 현장 체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고, 이공계 진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 내 테니스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28일 완공식을 가졌다.

전북대 테니스장 '환골탈태'

인조잔디 코트 3개면 추가 조성

관리동, 탈의·샤워실 개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 내 테니스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28일 완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완공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

된 테니스장을 둘러본 후,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테니스장 리모델링은 총 사업비 6억5,400만원이 투입돼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테니스장 관리동 및 탈의·샤워실을 개축했다.

특히 이용률 촉진을 위해 인조잔디 코트 3개 면을 추가 조성하고, 야간에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4개소에 라이트가 확충됐다.

/장은성 기자

오늘까지 '호원건축대전'

호원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28~30일 본교 공학관 4층 건축학과 갤러리에서 '제34회 호원건축대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호원건축대전은 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건축 설계 과정을 패넌과 모형, 그리고 디지털 작품 등을 통해 전시하는 자리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한 2년간(20년~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건축대전은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는 비슷하나 참가 대상을 기존의 본교 학생들에 더해 성인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건축학과의 다양하고도 풍부한 역량을 맘껏 뽐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패넌과 모형으로 전시되는 기존의 형식은 물론, 미래의 건축디자인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를 이용한 전시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전시회가 될 전망이다.

강희성 총장은 "학생들의 4년간의 꿈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호원건축대전에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기전자재료 분야 탁월함 인정

전북대 정창규 교수, 세라믹학회 신진과학자상 등 학회별 우수 연구자에 주는 상 잇달아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사진)가 한국세라믹학회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우수 연구자에게 주는 상을 잇달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한국세라믹학회가 수여하는 '2023 대주신진과학자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재료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2023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교수는 다양한 센서와 콘덴서 등에 사용하는 강유전체 및 압전체 재료에 대해서 세라믹과 고분자를 넘나들며,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저명한 학술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라믹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2023년 대주신진과학자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주전자재료에서 후원하는 상으로, 한국세라믹학회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40세 이하의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2023년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 상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별도로 없다. 그럼에도 올해는 이례적으로 30대 교수에게 수여된 것.

한편 정 교수는 이같은 학술적 성과들을 인정받아 최근 홍익대학교에서 강연자로 초청돼 전북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창규 교수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료 분야의 주요 학회에서 잇달아 상을 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8일 중국 허베이대학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맞손'

전주대, 中 허베이대와 협약

과학연구 공동 협력 등 나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8일 중국 허베이대학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제해금 국제교류위원장, 장형국 국제교류지원실장 등 전주대 관계자들과 귀지연 당위서기(총장급)와 생후이빈 국제합작처 부처장 등 중국 허베이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부 협약 분야로는 △과학연구 공동 협력 협정 △교원, 학생 교류 협정 △교원학생 협정 △영상미디어 분야 협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교는 과학연구팀 구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 교원과 학생 상호 파견, 영상미디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베이대 귀지연 당위서기는 "전주대와 허베이대가 유사한 전공끼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 교류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에서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 허베이대학교는 1921년 설립, 화학, 재료과학, 공학, 임상의학, 식물과 동물과학 등 5개 분야에서 세계 상위 1%에 드는 유수의 대학이다. 현재 85개 학부 전공, 80개 석사 전공, 17개 박사 전공, 13개 박사 후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8,000여명의 학부생과 1만1,000여명의 석·박사생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HI-ESG 지역문제해결 연계체계구축 포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8일 예술대학 대강당에서 HI-ESG 지역문제해결 연계체계구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강희성 총장과 정의봉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조항민 K-컬처테크융합원 융복합센터장(공연미디어학부 교수)과 최부현 산학협력단 부단장(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허남영 교수(성균관대 예술학 협동과정 초빙교수)는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친환경,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ESG경영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감동을 전달할 것인가를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용환 교수(호원대 경영학과)는 전북지역 공공기관들과 타 대학들의 ESG경영사례를 분석하면서 이를 호원대학교의 ESG경영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박형철 이사장(군산 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주도형 지역 캐릭터 사업인 '막바이와 친구들'과 관련된 ESG경영사례를 논의하면서 캐릭터 사업이 가져온 지역 사회의 기여 효과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